

고1국어 지학사

6(1) 도요새에 관한 명상 지문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1. 병국과 '나'에게 '도요새'가 지니는 의미를 묻는 문제
2. 노무과장과 공장 측 사람들의 가치관을 묻는 문제
3.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내용 일치 문제)
4. 인물의 말하기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인물의 심리, 태도를 묻는 문제
5. 학습 활동 「허생전」, 「허생의 처」에서 알 수 있는 인물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묻는 문제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철새 도래지인 동진강 하구에는 언제부터인가 도요새가 사라지고 있다. 재수생인 병식은 용돈을 벌기 위해 친구와 함께 새를 밀렵하는 일을 한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형 병국은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 제적된 후, 낙향하여 자책감을 갖고 생활한다. 그러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동진강의 철새(도요새)들이 사라지는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한다. ['나'(아버지)(병식과 병국의 아버지)는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고향을 잃고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 '나'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임.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1부에서는 '병식'의 시점, 2부에서는 '병국'의 시점, 3부에서는 '아버지'의 시점, 4부에서는 '작가'의 시점으로 서술의 시점이 변함.)으로, 제시된 부분은 동진강 하구를 찾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다.

동진읍에 정착했던 그해 가을이던가,(동진읍에 정착했던 과거를 회상함.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출제됨. 과거 회상이 시작되는 부분을 찾는 문제가 출제됨. 이 작품의 구성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됨.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임.) [전쟁 전 고향 땅에서 본 도요새(도요새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몸은 얇은 갈색에 어두운 갈색 무늬가 있으며, 다리, 부리가 길고 꼬리가 짧음.) 무리를 동진강 삼각주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마치 헤어진 부모와 동기간(형제자매 사이)과 약혼녀를 만난 듯 반가웠다.]([]: '도요새'는 고향의 가족들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임. '나(아버지)'는 전쟁 중에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임. ★'나'에게 있어 '도요새'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고향 사람 만나듯 반가운 존재이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됨. '도요새'를 본 후 '나'의 정서를 묻는 문제에 '그리움, 비애, 기쁨, 설움'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됨.) 너희들이 휴전선 위 통천을 거쳐 여기로 날아왔으려니,('나'와 '도요새'의 처지가 대비됨. '나'와 달리 '도요새'는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음.) 하고 대답 없는 물음을 던지면 울컥 사무쳐 오는 향수(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가 내 심사를 못 견디게 굵어 놓았다.(고향 생각에 마음이 아픈 '나(아버지)') 가져온 술병을 기울이며 나는 새 떼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도요새 무리를 북에 두고 온 그리운 가족이라 생각함.) 내가 말하고 내가 새가 되어 대답하는 그런 대화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새가 고향땅 부모님이 되고, 형제가 되고, 어떤 때는 약혼자가 되어 내게 들려주던 그 많은 이야기를 나는 기쁨에 들떠, 때때로 설움에 젖어 화답하는 그 시간만이 내게는 살아 있는 진정한 시간이었다.(현실의 삶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과거의 삶을 그리워함.) 세월의 부침 속에 고향에 대한 내 향수도 차츰 식어 갔다.(산업화를 전후로 한 세월의 흐름, 생태계 파괴로 도요새가 사라지면서 '나'의 향수도 식어 감.) ★'시간이 지날수록 동진강에서 느끼는 '나'의 향수는 커져만 갔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됨.) 이제 새 떼가 부쩍 줄어든 동진강 하구(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됨.)도 내 인생과 함께 황혼을 맞고 있었다. 동진강이 악취 풍기는 폐수로 변해 버렸기 때문(새 때가 줄어든 이유, '폐수'는 공장 따위에서 쓰고 난 뒤에 버리는 물을 의미하 무로, 산업화를 드러내 주는 소재로 볼 수 있음.)이었다. 지금 보는 바다 역시 해엄처 북상하면 며칠 내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던 거리가 까마득히 멀어 보였다.(고향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더해짐.) 철새나 나그네새는 휴전선을 넘어 자유로이 왕래하건만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만 해가 갈수록 내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겼다.(추상적 대상, 관념(안타까움,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함. ★“깊은 주름”에는 ‘나’의 비애감이 응축되어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됨.)

▶ 도요새를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아버지)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나는 여느 날처럼 신문을 폈다. 특별한 읽을거리나 속 시원한 기사가 눈에 띌 리 없었다. 오전에는 별 할 일이 없으므로 일 면부터 팔 면까지 살살이 읽고 저녁 텔레비전 프로를 훑어보았다. 좋아하는 권투 중계는 없었다. 벽시계를 보았다. 이제 겨우 열 시였다. 지금 기원으로 나간 다 해도 강 회장이 벌써부터 출근해 있을 리 없었다. [강 회장은 강원도 동진시 통천군 군민회 회장으로, 나와 십오 년 넘이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동향의 실향민으로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사이임.)였다. 강 회장 고향은 부전령 아래 송화였고 나보다 칠 년 연상이었다. 흥남 철수 때 처와 자녀 둘을 고향에 두고 홀로 피란 내려와 구제품 따위를 파는 행상을 시작해선 육십 년대 초 이곳에 정착하여 상동 시장에서 포목점을 내었다. 동진읍이 시로 승격되자 강 회장이 사둔 잡종지(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지가(땅값)가 뛰었고 점포가 부쩍 커졌다. 그러나 일 년 전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일어난 뒤로 포목업도 남한에서 새 장가를 들어 얻은 여편네에게 넘기고 바둑으로 소일하고 지냈다. [[] : 강 회장이라는 인물이 살아온 내력을 소개함. 요약적 제시

▶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와 ‘강 회장’에 대한 소개

내가 신문 바둑난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대문 초인종이 길게 울렸다. 마루 끝에 앉아 껌을 씹으며 라디오 유행가를 듣던 종옥이가 대문계로 달려갔다. 초인종 소리로 보아 두 아들 녀석 같지 않았고 여편네가 또 뭘 빠뜨리고 나갔다 황망히(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는 면이 있게) 돌아왔으려니 싶었다.

“누구세요?”

종옥이 철문 쇠빗장을 달그랑거리며 물었다.

“김병국(‘나’의 장남)이라고, 이 집에 살지요?”

바깥의 무뚝뚝한 목소리였다.

종옥이 문을 열자, 장교와 사병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장교는 중위였고, 사병은 상등병이었다. 둘의 거동이 당당한 데다 사병은 총을 메고 위장망 씌운 철모를 쓰고 있었다. 내 가슴이 철렁했고 오른쪽 턱에 경련이 왔다.(장교와 사병의 모습에 기세가 눌림.) 전쟁 때 철원 전투에서 왼쪽 다리에 중상을 당한 뒤부터 놀랄 때나 흥분하면 부교감 신경의 실조증이 나타났다.(‘나’는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음.) 병국이 제 어미에게 돈을 못 타 내다 보니 내게 오천 원을 돌려 달라던 게 그저께였다. 내가 강 회장한테 돈을 빌려 애남한테 주었는데 녀석이 그 돈으로 무슨 말썽을 피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엉거주춤 마루로 나섰다. 이런 종류의 일(병국을 찾는 방문객이 집에 찾아온 일)은 울여름 들고 벌써 두 차례였다.

▶ 하루하루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집에 병국을 찾는 방문객(장교와 사병)이 찾아온 지난여름, 한창 더위가 짙 무렵이었다.(병국을 찾는 방문객이 집에 찾아온 일을 회상함. 현재→과거)

비(B) 공단 성장 비로 서교 공장 노무과장이 어깨 벌어진 젊은이 셋을 거느리고 느닷없이 집으로 들어닥친 일이 있었다. 그날은 종옥이가 시장에 가고 없어 나 홀로 집을 지키던 참이었다.

[“김병국이란 작자가 누구요? 도대체 어떤 위인인지(병국에 대한 비아냥거림) 상판(‘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나 좀 봅시다.”

젊은이 하나가 주먹을 내두르며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내 아들놈인데 당신네는 누, 누구요?”

기세에 눌러 내 목소리가 더욱 더듬거렸다.(평소에도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음. 소심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음.)

“당신 자식이람 아직 마빡(‘이마’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 새파란 놈이겠군. 그 새끼 좀 봅시다.”

다른 젊은이가 욕박질렀다.

“아들은 지, 지금 집에 없소.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요?”

“그 자식 간 데를 물어요. 당장 작살을 내고 말 테니.(협박한 기세)”

또 다른 젊은이가 방문 열린 큰방과 건넌방을 기웃거리며 말했다. 마흔쯤 되어 보이는 노무과장이란 자가 내게 정중하게 인사했다.(젊은이들과 달리 격식과 예의를 갖춘.)

“이거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병국이란 자제분을 만날 수 없겠습니까?”

노무과장이 젊은이들을 제지시키곤 말했다.

“마루에라도 조, 좀 앉으십시오.”

“앉구 자시구 할 시간이 없단 말이오!”

한 젊은이가 말했다.

“가만있자, 병국일 차, 찾자면……. 아무래도 힘들겠네요. 자정이 돼야 돌아오니 나, 난들 행선지를 알 수 있어야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자제분이 우리 회사를 상대로 관계 요로(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자리나 지위. 또는 그 자리나 지위에 있는 사람)에 진정서(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여 적은 글을 의미함. 사건의 발단이 되면서 동시에 갈등의 원인이 되는 소재임. 이 소설의 주제와도 관련을 맺음.)를 보냈습니다.” ([]: 노무과장이 병국을 찾아온 이유)

노무과장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 시 보건과에 접수한 진정서 사본 좀 보십시오.” ([]: 앞의 단락들과 비교하여 단락의 서술 방식이 달라졌음. 서술자의 직접 서술 방식(서술자가 사건을 직접 말해 주거나 요약하여 설명함.)에서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 방식(장면을 그대로 보여 줌.)으로 서술 방식이 바뀌고 있음. 이는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를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고, 사건을 보다 극적이고 현장감 있게 제시할 수 있게 해줌.)

노무과장은 마루에 걸터앉아 주머니에서 복사판 서류를 꺼냈다. 종이를 받아든 내 손이 떨렸다.(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 소심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음.) 방 안으로 들어가 돋보기안경을 찾아 낄 틈도 없이 희미한 글자를 대충 훑어보았다.(마음이 급해져서 나온 행동)

[성창 비료 서교 공장은 연간 사십 억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전혀 없음(병국이 진정서를 내게 된 이유)이 입증되었다.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20분. 당 공장은 야음(밤의 어둠)을 틈타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여 그 가스가 폐교천(석교천)을 따라 안개처럼 덮쳐 와 동진강 하류로 확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새벽 4시 10분 동진강 하류에서 오징어잡이에 출어(물고기를 잡으려 배가 나감.)하려던 어민 18명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있었다. 당사는 기계 밸브가 고장 나서 가스가 샀다고 변명하지만 이런 사건은 일주일을 주기로 이미 수십 차례 반복되었음을 입증하며(관계 자료 별첨), 이로 미루어 당사는 일부러 밸브를 틀어 못쓰게 된 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성창 비료 서교 공장은 환경 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폐기물을 방류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으로써……. ([]: 병국이 낸 진정서의 내용: 성창 비료 서교 공장의 폐기물 방류로 인해 동진강의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내용)

“정신병자가 쓴 낙선 뭐 더 읽을 필요도 없소.”(진정서에 대한 공장 측의 반응: 환경오염에 대해 개의

치 않으며, 진정 내용을 받아들이 의사가 없음.)

하며 한 젊은이는 내가 읽던 진정서를 낚아챘다.

“아, 아들놈이 낸 진정서 틀림없습니까?”

노무과장에게 내가 물었다.

“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자제분은 이 방면에 상습범(노무과장은 병국을 범죄자로 표현함.)이더군요. 지난 유월에는 풍천 화학(성창 비료 서교 공장과 마찬가지로 폐기물을 방류함.)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습니다. 풍천 화학 역시 야음을 틈타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동진강 하류 삼각주 지대 각종 새 삼백여 마리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했더니요.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노무과장의 가치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고 사업 이익만을 생각함. 인간 이외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 ↔ 생태주의적 가치관)”

노무과장 목소리가 열을 띠더니 ‘새나 물고기’란 말을 힘주어 강조했다.(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반언어적 표현)

“기가 막혀서. 뭐 제 놈이 실신했다거나 가족이 떼죽음당했다면 또 몰라.”

한 젊은이가 가소롭다는 듯 시큰둥 말했다.

“국민 소득 일천 달러 달성(시대적 배경이 드러남. 이 작품의 창작 시기는 1979년으로 이 시기의 주된 관심사는 산업화의 추진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국민 소득을 높이는 것이었으며 환경 문제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음.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을 찾는 문제에 ‘국민 소득 일천 달러 달성’이 출제됨.)에, 오늘날 조국 근대화(공장 측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조국 근대화, 즉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 향상을 내세움.)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줄 선생도 알지요?”

다른 젊은이가 내 눈을 찌를 듯 손가락질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관용적 표현(속담), 하찮은 새나 물고기 살리겠다고 조국 근대화(경제 성장)에 차질을 주겠다는) 미친놈 짓거리(환경 문제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을 알 수 있음.)를 이번으로 뿌릴 뻔해야 해!(관용적 표현, 근절해야 한다는 의미)”

또 다른 젊은이가 말했다. 그들은 병국이 소재를 두고 다시 한차례 이구동성 삿대질하며, 그놈이 돌아올 자정까지라도 기다리겠다고 세 젊은이가 마루로 올라왔다.

“선생, 진정도 진정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명예 훼손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적반하장(賊反荷杖)의 태도) 간혹 기계 고장으로 가스가 새는 수가 있긴 합니다.(폐기물 방류가 고의가 아님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함.) 그러나 그걸 고의로 몰아붙이는 이런 진정에는 우리가 오히려 명예 훼손으로 자제분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나’를 은근히 협박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냄.) 선생도 지난번 반상회엘 나갔다면 우리 비(B) 공단에서 돌린 공문을 받아 보았을 겁니다. 공단 측에서도 공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폐수·풍속 측정 등 팔대 공해 검증 기구를 사들이려 예산을 책정했다는 내용(공장 측의 생색내기 대책①) 말입니다. 또 오염 가능 지역을 삼 단계로 분류하여 오백여 가구 이주 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점(공장 측의 생색내기 대책②)도 읽으셨겠지요?”

노무과장이 숨을 돌리더니 담배를 꺼내어 한 대를 자기가 물고 한 대를 내게 권했다. 그로부터 그들은 한 시간 남짓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동안 노무과장은 이론을 앞세운 설득으로, 세 젊은이는 힘을 과시한 위협으로 나를 몰아붙였다. 그동안 병국이는 용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병국의 행위를 옹호하고 싶은 ‘나’의 심리를 엿볼 수 있음.) 그때도 그는 이틀째 집을 비우고 있었다. 동진강 하류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아니면 웅포리 아바이집 토방에서 잠을 잤음이 틀림없었다.

▶ 지난여름, 서교 공장 노무과장이 찾아왔던 일을 떠올림

“선생님이 김병국 부친 되십니까?(과거→현재)

중위가 정중하게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만…….”

“보호자로서 저희 부대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병국이 지금 어, 어디 있습니까?”

“부대에서 보호 중입니다.”

“보호 중이라니, 녀석이 무, 무슨 사건을 저질렀나요?”

“아드님이 통금 시간에 우리 통제 구역 안으로 무단출입했어요. 선생님도 알겠지만 그 시간에 무단출입자는 부대 측에서 발포할 권한이 있습니다.(군인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를 밝힘.)”

“그럼 발포해서 병국이가 다, 다쳤나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간 잠시 시간을 내셔야겠어요.”

“부대가 어딘데요?”

“동남만 일대 경비를 담당하는 삼오칠오 부대입니다.”

▶ 병국의 무단출입 때문에 부대 관계자가 ‘나’의 동행을 요구함

나는 방으로 들어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해석을 달리하면 까다로운 사건일 수 있으나 병국의 경우로 따져 볼 때 그리 큰 걱정은 안 해도 좋을 듯했다. 병국이가 해안선을 따라 남하해 온 간첩이 아니요, 부대 경계 배치 상황을 탐지하려는 첩자가 아닌 이상 무사히 풀려나올 것임이 분명했다. 녀석은 새에 관한 무슨 조사를 목적으로, 아니면 수질 오염과 관련하여 경계 지구 안으로 잠입했음이 틀림없었다. (‘나’가 병국의 경우로 따져 볼 때 그리 큰 걱정은 안 해도 좋을 듯하다고 생각한 이유)

우리가 대문 밖으로 나오니 군용 지프가 대기하고 있었다. 사병이 운전수 옆자리에 타고 중위와 나는 뒷좌석에 앉았다. 차가 시내로 빠져나갈 동안 중위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무료한 시간을 쪼개느라고 내가 내 소개(6.25에 참전했던 상이군인임을 밝힘.)를 했다. [나는 스물여섯 해 전 전역된 대위 출신이다. 1952년 1월, 철원 전투(6.25 중 벌어진 전투)에서 중상을 입어 현재도 상이(부상을 당함.) 장교로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현역 시절 무공 훈장을 세 개나 받은 바 있다.]([]: ‘나’의 이력 소개. 군인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함.) 내가 그런 말을 더듬더듬 엮자 중위는 동지적 친근감(‘군인’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동질감, 친근감을 느낌.)을 보이며, 그럼 상사(자기보다 벼슬이나 지위가 위인 사람)님이시군요, 하곤 한결 공손히 응대했다.

“파견 대장님 소관이라 저는 그저 심부름을 왔습니다만.”

하고 중위가 서두를 땀 뒤 말했다.

“아드님이 성인이기 때문에 굳이 보호자를 대동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 그 언행 진부(참됨과 거짓됨. 또는 진짜와 가짜)와 가족 관계를 파악하려 선배님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혹 제 아들놈이 철새 휴식 장소나 그 은신처를 찾으려 통제 구역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요?”(‘나’가 생각하는 이유가 아닌, 다른 심각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냄.)

“글쎄요…….”

“아니면 동진강 하류의 폐, 폐수 오염도를 조사할 목적으로?”

“둘 중 하나겠죠.”

중위는 알 만하다는 얼굴로 나를 보고 빙긋 웃었다.

[“그럼 경찰서로 이첩(받은 공문이나 통첩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 알림.)되는 건가요?”]([]: ‘나’의 걱정이 드러남.)

“가 보시면 만나겠지만 저희 파견 대장님은 무척 인간적이십니다.(파견 대장이 법대로만 해결하지 않고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는 인물이라는 뜻. 파견 대장이 병국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함.)”

나는 더 물을 말이 없었다. 중위 어투로 보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안심했다.(파견 대장이 인간적이라는 말에 ‘나’의 걱정이 다소 해소됨.) 어느덧 차는 시내를 빠져나와 석교천을 끼고 사방이 트인 해안 지대를 달렸다. 나는 지프 차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황량한 공한지(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심지 않고 놀리는 땅) 멀리로 비(B) 공단 공장 굴뚝들이 보였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밀려 연기가 시내 쪽으로 날아갔다. 그중 삼영정유공장으로 짐작되는 굴뚝에 가스를 태우는 불꽃이 중동 유전 지대처럼 붉은 혀를 날름거렸다.(공장 굴뚝에서 가스를 태우는 불꽃을 뱀이나 악귀의 혀처럼 묘사함으로써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냄.) 그 불꽃을 휩싼 검은 연기가 분진을 날리며 서쪽 하늘로 날아갔다. 삼각주 갈대밭과 해안 구릉 사이로 바다가 보이자, 지프는 휘어진 길을 따라 남쪽으로 꺾어 들었다. 나는 차창을 열었다. 소금 내 섞인 바닷바람을 마시자 뭉쳐 누웠던 희열이 내 몸을 천천히 달구었다.(바다와 관련된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름.) 나는 바다(과거 회상의 매개체 ★'자연물을 매개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됨.)에 눈을 주었다. 가을 햇살 아래 바다의 잔물결이 반짝거렸다. 나는 바닷바람을 마시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어릴 적부터 병국이 그, 그놈은 바다를 무척이나 좋아했더랬지요.”

중위를 돌아보며 내가 말했다.

“저도 고향이 인천입니다만, 소년들에게 바다는 늘 큰 꿈을 키워 주지요.”

큰 꿈, 그렇다.(과거 회상이 시작됨.) 병국이는 어릴 적부터 바다를 보며 큰 꿈을 키웠더랬다. 두 녀석(병국, 병식)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일요일이면 자전거 뒤에 병국이를 앉히고 자전거 앞에 병식을 태워 나는 곧잘 동진강 삼각주나, 동남만 남쪽 돌기에 자리 잡은 장진포까지 바다 구경을 나갔다. 병식은 장난질 심한 개구쟁이로만 기억에 남아 있지만, 병국이는 바다로 나오면 기선(증기 기관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을 보는 게 소원이었다. 동남만이 공업화의 거센 물결을 타자 한갓 고래잡이 기지였던 장진포가 항만 준설(물의 깊이를 깊게 하여 배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하천이나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 공사를 마쳐 이제 몇 만 톤급 배까지 들어오게 되었지만, [[] : 산업화로 인해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드러냄.) 그 당시는 고래잡이 배가 큰 배였다.

“아버지, 저는 외국 깃발을 단 큰 기선이 보고 싶어요.”

병국이는 말했다. 노를 젓거나 닻을 올려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룻배(돛이 없는 작은 배)나, 통통 배라 부르던 발동선은 녀석의 안중에 차지 않았다. 갈색 머리 코 큰 선원이 마도로스파이프를 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인사하는 기선이 어촌에 닿을 리 없었지만, 그는 난바다(육지로 둘러싸이지 아니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기선이 지나가는 구경이라도 했으면 바랐다.

“너는 큰 배가 그, 그렇게 타 보고 싶니?”

내가 물었다.

“그래요. 아버지는 기선을 타 보셨나요?”

병국이가 조갑지(조개, 혹은 조가비(조개껍데기)의 방언)를 주워 파도 위로 힘껏 내던졌다. 조갑지를 삼킨 큰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썰물이 파도의 뿌리를 밀쳤다. 큰 파도가 작은 파도로 기를 낮추어 발밑까지 따라왔다.

“나야 물론 여러 번 타 봤어. 부산서 일본 시, 시모노세키란 항구까지 배를 타고 건넜지.”

내 목소리가 시무룩했다. 해방 전 나는 오사카에서 전문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다.(과거 회상) 태평양 전쟁 말기 조선인 강제 학병 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나는 종전(전쟁이 끝남.)을 그곳에서 맛을 뻔했다. 1944년 여름,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해방은 금강산 유점사 말사(본사의 관리를 받는 절. 또는 본사에서 갈라져 나온 절)인 마하연에서 맞이했다. 이듬해 봄, 나는 대학에 다시 다니려 서울로 갔다.

“아버지, 기선을 타면 거룻배보다 훨씬 기분이 좋겠죠?”

“배가 크니까, 요동이 어, 없어 방 속에 있는 기분이지.”

“갑판이 학교 운동장만 하다면서요?”

[“병국아, 통일되면 우리 그런 배 타고 아버지 고향으로 가자구. 거기도 바닷가니 금강산 구경도 할 수 있거든. 내가 원산에서 중학교 다닐 때 금강산에 수학여행을 갔더랬지. 또 해방되던 해는 일 년 가

까이 징용을 피하느라 금강산 기, 깊은 암자에서 숨어 살았어.” 1([]: 실향민의 통일에 대한 소망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남.)

“금강산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면서요?”

1 “무, 물론. 그림으로도 나는 금강산만큼 아름다운 산을 본 적 없어. 너도 들었지, 삐죽삐죽한 보, 봉우리가 일만이천 개나 된다는 것 말이야. 차, 참 볼만하지. 내금강만 하더라도 젖 높은 비로봉이며, 명경대·동석동·망군대·백만봉·조양봉·시, 십이폭포·진주담이며 외, 외금강은 또 어떻구. 만물상·비봉·폭포·연주담·집신봉·오, 오류동, 구룡천의 구룡연폭포…….” 1([]: 금강산의 지명들을 열거하여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냄. ★“나’가 금강산 지명을 자연스레 외우는 모습에서 끊임없이 고향을 생각해 왔음을 알 수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됨.)

“그만하세요. 아버지 언제 그걸 다 외웠나요?”

“어디 그, 그뿐인가. 해금강, 신금강은 또 어떡하고. 장안사·표, 표훈사·유점사, 그것 말고도 절은 또 얼마라구.”

나는 신이 나서 입술에 침을 튀겨 가며 지껄었다.(고향에 대한 향수와 고향을 떠올리며 느끼는 행복감이 드러남.)

남한에 정착한 뒤 그곳이 그리워 지도를 펴 놓고 주야장천 들여다보니 자연스럽게 외우게 된 지명이 었다.(한순간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음.) 내 눈앞에 금강산을 일주하듯 기암절벽의 산봉우리와 청청한 폭포와 단풍으로 타오르는 떨기나무 숲이 원색 영화 장면처럼 스쳤다. 나는 내 생전에 다시 그 산을 오를 수 없을 것 같았다. 만약 내가 한 번 더 그 산에 오를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서 눈을 감아도 좋으리라 하고 생각하자, 눈물이 돌고 코끝이 찡했다.

“아버지, 저 바다 따라 북으로 올라가면 금강산에 닿겠네요?”

“그럼, 아버지 고향 통천에도 다, 닿지. 두백리라고, 참 경치 좋은 어촌이란다. 해방 전에 네 할아버진 그곳에서 큰 어장을 가지고 계셨어.(나’가 고향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임을 짐작케 함.) 지금 사, 살아 계신담 연세가 쉰아홉, 내년이 환갑이로구나.”

갈매기(나’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 앞서 나온 ‘도요새’처럼 ‘나’와 달리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존재임.) 두 마리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내 눈과 병국이 눈이 갈매기를 따라 갔다.(갈매기’는 ‘나’의 향수를 환기하는 존재임.)

“저 갈매기 타고 갈 수 있다면 내, 내일 아침쯤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한숨 끝에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 ‘나’는 병국과 금강산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회에 젖음

“아버지, 『닐스의 이상한 여행』(고향에 가고 싶은 ‘나’의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함.)이란 동화책을 읽은 적 있어요?”

병국이 물었다.

“아니.”

“그 책을 보면 닐스가 꼬마 요정 톰테를 못살게 굴다 요술에 걸려 키가 십 센티도 안 되는 난쟁이로 변하지요. 그래서 큰 거위를 타고 기러기 떼를 따라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나요.”

“참 재, 재미있는 동화책이로구나. 나도 꼬마 요정 요술에나 걸렸으면 좋겠구나.”

“그럼 아버지만 거위를 타고 고향으로 가 버리면 어떡해요?”

“아니지. 너희들을 태워 고향으로 떠, 떠나야지.”

“야, 신난다. 정말 그런 요술이 동화가 아님 얼마나 좋을까.”(과거 회상이 끝남.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비관적 인식을 보여 줌. ★‘동화 이야기를 통해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개인의 욕망과 상황 간의 괴리를 드러낸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됨.)

▶ ‘나’는 병국과의 동화책 이야기를 통해 고향에 가고 싶은 간절함을 느낌

지프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섰다. 본부 막사 앞에 차가 몇자, 우리는 내렸다. 중위는 나를 본부 막사 파견 대장실로 안내했다. 대장(중위가 '나'에게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말한 파견 대장)은 자기 책상에서 서류철을 뒤적이다 우리를 맞았다. 그의 계급은 소령이었다.

“김병국 부친 되십니다.”

중위가 나를 소개했다. 그리고 덧붙여, 내가 예편된 대위 출신으로 육이오 전쟁에 참전한 상이용사라고 말했다.(중위가 대장에게 '나'에 대해 소개함.)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윤영구라 합니다. 앉으시지요.”

윤 소령이 나를 회의용 책상으로 안내해 간이 철제 의자를 권했다. 그는 호인다운 인상에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여, 중위의, 파견 대장은 인간적이란 말에 한결 신뢰감을 주었다.(인물의 외양을 보고 그의 성품을 짐작함.)

“불비(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지 아니함.)한 자식을 뒤서 죄, 죄송합니다. 자식놈과 얘기해 보셨다면 아, 알겠지만 천성이 착한 놈입니다.”(의도적으로 통제 구역에 무단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나'의 의도를 내포함.)

의자에 앉으며 내가 말했다.

“어젯밤 마침 제가 부대에서 숙식할 일이 있어 장시간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눠봤지요. 똑똑한 젊은이더군요.”(윤 소령이 병국이 하는 일에 공감할 줄 아는 식견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음. 앞서 노무과장은 병국을 '상습범'이라고 표현했으나, 파견 대장은 병국을 '똑똑한 젊은이'라고 표현함.)

“요즘 제 댄에는 뭐 조류와 환경오염 실태를 여, 연구한답니다고……. 모르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시, 심려를 끼치지 않았나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제분은 군 통제 구역 출입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텐데도 무모한 행동을 했어요. 설령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사전에 부대 양해나 협조부터 요청해야지요.”(병국이 하는 일에 공감하긴 하지만 병국에게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함. 원칙을 고수하는 윤 소령의 성격이 드러남.)

“물론 그래야지요.(윤 소령의 말을 긍정적인 후 자식을 두둔하며 이해와 선처를 구함.) [야영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워, 월경(국경이나 경계선을 넘는 일)했겠쎄.]([]: 병국의 행위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였다고 변명하면서 자식을 두둔함.) 어떻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아비 된 제가 주의를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윤 소령(안보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인물. 국가 안보와 경비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님.)은 병국의 신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법적 처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선처를 암시함. ★'윤 소령은 원칙을 중요시하므로 병국의 행동에 대해 단호히 처벌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윤 소령은 보안과 경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병국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됨.), 1968년 11월 울산·삼척 지구 무장 공비 출현으로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예로 들었다.(무장 공비 출현 사건을 예로 들어 국가 보안과 경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병국의 행동이 무모한 행위였음을 상기시키고 있음.)

“……그들은 야음(밤의 어둠)을 틈타 쾌속정을 이용하여 동해안을 따라 남하했던 겁니다.”

윤 소령은 말했다. 그는 국제 유수(손꼽을 만큼 두드러지거나 훌륭함.)의 공업 단지 보안과 경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한 무장 공비가 자주 출현했던 1960년대의 상황과, 휴전 상황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윤 소령은 국가 보안과 경비의 중요성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아시겠지만 우리는 실전이 없달 뿐 휴전이란 이름으로 전쟁을 쉬고 있는 준전시 상태 아닙니까. 남북 공존의 평화를 원한다면 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경각심을 풀 수 없어요. 기실 국민 복리와 제반 사업의 성장이란 것도 안보 확립(윤 소령이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 앞서 노무과장은 경제 성장과 같은 조국 근대화를 중요시 여겼음.)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 소령은 당번병을 불러 김병국 군을 데려오라고 말했다. 한참 뒤, 사병과 함께 병국이 파견 대장실

로 들어왔다. 땀국 앓은 피죄죄한 그의 물결이 중병 환자 같았다. 점퍼와 검정 바지도 펄투성이여서 하수도 공사를 하다 나온 듯했다. 병국은 움푹 꺼진 동태 눈으로 나를 보았다.(초췌한 외양 묘사 - 병국의 현재 처지와 내면을 보여 줌.)

“이 녀석아, 넌 도대체 어, 어떻게 돼먹은 놈이냐! 통금 시간에 허가증 없이 해안 일대에 모, 못 다니는 줄 뻔히 알면서.”(통금 제도가 있었던 1970년대의 사회상을 알 수 있음.)

내가 노기를 띠고 아들에게 소리쳤다.(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나’는 병국의 초췌한 모습에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으나 윤 소령을 의식하여 일부러 화를 냄. ★“나’는 병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병국의 행동을 탓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됨.)

“본의는 아니었어요. 사흘 사이 동진강 하구 삼각주에서 갑자기 새들이 집단으로 죽기에 그 이유를 좀 알아보려던 게…….”(병국이 통제 구역에 들어와 군부대에 붙잡히게 된 이유, ‘나’의 예상에 들어맞음.)

병국이 머리를 떨구었다.

“그래도 변명은!”

“고정하십시오. 자제분 의도나 진심은 충분히 파악했으니깐요.”(윤 소령이 병국의 의도를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음.)

윤 소령이 말했다.

병국은 간밤에 쓴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고, 각서 한 장을 썼다. 내가 그 각서에 연대 보증(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을 섬으로써 우리 부자가 파견대 정문을 나서기는 정오가 가까울 무렵이었다.(긴 시간 동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침.) 부대에서 나올 때 집으로 찾아왔던 중위가 병국이 사물을 인계했다. 닭털 침낭과 등산 배낭, 이 인용 천막, 그리고 걸레 조각처럼 늘어진 바다오리와 꼬마물떼새 시신이 각 열 구씩이었다.(병국이 야영을 하며 새들의 집단 폐사 원인을 조사했음을 알 수 있음.)

▶ 군부대에서 풀려난 병국을 데리고 부대를 나섬

“죽은 새는 뭘 하게?”(‘나’의 질문 의도: 환경오염과 관련된 병국의 행동에 관심을 보임. ‘나’는 동진강 하구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임.)

웅포리 쪽으로 걸으며 내가 물었다.

“해부를 해서 사인을 캐 보려구요.”

“폐, 폐수 탓일까?”

“글쎄요…….”

“너도 시장(배가 고프.)할 테니 아바이집으로 가서 저, 점심 요기나 하자.”

나는 웅포리 정 마담을 만나 이жат돈을 받아오려던 아내 말을 떠올렸다. 병국이는 식사 따위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병국의 관심은 오로지 새의 사인을 밝히는 것임.)

[“아버지, 아무래도 새를 독살하는 치(‘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병국이 추측하는 새들의 폐사 원인 ★‘병국은 부대에서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들의 집단 폐사 원인을 조사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됨.)

“그걸 어떻게 아니?”

“갑자기 떼죽음당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전에도 새나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물 탓이야. 이제 동진강은 강물이 아니고 도, 독물이야. 조만간 이곳에서 새 떼가 자취를 감추고 말게야.”(병국과 달리 ‘나’는 ‘독물’이 되어버린 폐수가 새들의 폐사 원인이라고 생각함. ★‘새들의 집단 폐사 원인에 대한 ‘나’의 생각이 병국과 같음을 알 수 있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됨.)

▶ ‘나’는 병국과 새들의 집단 폐사 원인에 대해 대화를 나눔

[뒷부분 줄거리] 병국은 철새의 죽음과 병식이 하는 일(재수생인 병식은 용돈을 벌기 위해 친구와 함께 새를 밀렵하는 일을 함.)이 관련 있음을 알게 되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병식(병식과 병국의 가치관이 다름. 병식에게 '새'는 돈벌이의 대상, 경제적 이익 추구의 대상이지만, 병국에게 '새'는 정신적 자유의 상징, 지켜야 할 생명임. '나'에게 '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임.)과 다툼 뒤 바다로 가는 버스에 오른다. 병국은 버스에서 내려 술집을 지나가다가 통일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만 자신의 존재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지나쳐 버린다. 그리고 비상하는 도요새를 바라보고 따라가다 놓치고 만다.(자신이 꿈꾸어 오던 이상이 좌절된 병국에게 도요새는 환경오염으로 사라져 가는 안타까운 대상이자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임.)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학습 활동 지문 분석]

(가)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은이 십만 냥이 남았다.

“이건 변 씨에게 값을 것이다.”(허생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변 씨에게 돈을 빌렸음.)

허생이 가서 변 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세월이 흘렀기 때문)

하고 묻자, 변 씨는 놀라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 냥을 실패 보지 않았소?”(변 씨의 한계: 상대방의 외양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판단함.)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상인) 일ियो. []: 허생의 한계: 상인을 무시함.) 만 냥이 어찌 도(道)를 살찌게 하겠소?”(허생의 가치관을 알 수 있음. 물질적 가치인 ‘돈, 재물’보다는 정신적 가치인 ‘도’를 더 중시함.)

하고, 십만 냥을 변 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아침의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 읽기를 중도에 폐하고 말았으니, (허생은 궁핍한 상황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음.) 당신에게 만 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 씨는 대경해서 일어나 절하고 사양하고(허생의 비범함을 깨닫고 자세를 바꿈.), 십 분의 일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어, (허생이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한 것은 도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지 장사치처럼 이익을 취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 → 허생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자신이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선비임을 드러내는 것임.)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허생의 계급의식의 한계)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 버렸다.

- 박지원, 「허생전」에서

(나)

“당신은 밤낮없이 글을 읽는데,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니 어찌 된 것입니까?”(집안의 가장이 독서에만 몰두하고 생계를 돌보지 않고 있음. ★‘허생에게 독서는 천하를 경영할 재주를 갖추어 뛰어난 인재가 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됨. 허생은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있으며 허생은 오로지 학문 수양을 위한 목적으로 독서를 하는 것)

남편(허생, (가)와 달리 '허생의 처'를 중심인물로 설정하고 있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삶을 '허생의 처'를 통해 보여 줌으로써 '허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은 여전히 책에 시선을 둔 채 가볍게 대꾸했다.

“공부가 미숙한 때문이오.”(독서의 목적: 학문 수양 ★‘허생은 생계를 돌보는 것보다 학문을 수양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긴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됨.)

“그럼 장사라도 하여 먹고살아야지요.”(허생의 아내는 생계를 걱정하고 있으나, 허생은 생계에 대해 별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음.)

“장사는 밀천이 없는데 어찌하겠소.”

“그럼 공장(수공업에 종사하던 장인,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일이라도 하시지요.”

“공장이는 기술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당신은 주야로 독서하더니(독서와 관련된 한자서어: 독서삼매(讀書三昧), 위편삼절(韋編三絕), 차형손설(車螢孫雪)) 배운 것이 고작 어찌하겠소 타령입니까? 사람은 생명이 있는 다음에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법인데(생계를 돌보는 것이 중요함. 이상적인 학문, 명분보다 실용적 가치를 중시함.) 이제 우리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도리를 차리셔야 합니다.”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칠 년밖에 되지 않았거늘 나더러 뭘 하라는 거요?”

“대체 무엇을 위해 독서하십니까?”(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독서는 경제적 무능을 감추기 위한 핑계로 인식됨.)

남편은 대답이 궁해지자 책을 탁 덮고 일어나 탄소리를 했다.

“애석하구나, 겨우 칠 년이라니.”

그러고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남편은 뛰어난 인재라고 했다. 능히 천하를 경영할 재주가 있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죽는지 사는지 아내가 모르고, 아내가 죽는지 사는지 남편이 몰라야만 뛰어난 인재가 되는 거라면 그 뛰어난 인재라는 말은 분명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리라.(남편의 태도에 대한 불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비판함. ★‘허생의 부인은 경제제민(經世濟民)의 이상만을 추구하는 허생을 비판하고 있다.’, ‘허생의 부인은 무능력한 양반을 비판하는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이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됨.)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란 성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며,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살도록 해 주는 것, 그것 말고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허생의 처는 대의명분보다 소박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중시함.)

- 이남희, 「허생의 처」에서

고1국어 지학사

6(1) 도요새에 관한 명상 지문 확인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앞부분 줄거리] 철새 도래지인 동진강 하구에는 언제부터인가 도요새가 사라지고 있다. 재수생인 병식은 용돈을 벌기 위해 친구와 함께 새를 밀렵하는 일을 한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형 병국은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 제적된 후, 낙향하여 자책감을 갖고 생활한다. 그러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동진강의 철새(도요새)들이 사라지는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한다. [‘나’(아버지)(병식과 병국의 아버지)는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고향을 잃고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 ‘나’는 ____과 떨어져 있는 상황임.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1부에서는 ‘병식’의 시점, 2부에서는 ‘병국’의 시점, 3부에서는 ‘아버지’의 시점, 4부에서는 ‘작가’의 시점으로 서술의 시점이 변함.)으로, 제시된 부분은 동진강 하구를 찾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다.

동진읍에 정착했던 그해 가을이던가,(동진읍에 정착했던 ____를 ____함.) [전쟁 전 고향 땅에서 본 도요새(도웃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몸은 얇은 갈색에 어두운 갈색 무늬가 있으며, 다리, 부리가 길고 꽂지가 짧음.) 무리를 동진강 삼각주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마치 헤어진 부모와 동기간(형제자매 사이)과 약혼녀를 만난 듯 반가웠다.]([]: ‘도요새’는 ____들을 ____게 하는 ____임. ‘나(아버지)’는 전쟁 중에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임.) 너희들이 휴전선 위 통천을 거쳐 여기로 날아왔으려니,(‘____’와 ‘____’의 처지가 ____됨. ‘나’와 달리 ‘____’는 ____할 수 있음.) 하고 대답 없는 물음을 던지면 울컥 사무쳐 오는 향수(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가 내 심사를 못 견디게 굵어 놓았다.(고향 생각에 마음이 아픈 ‘나(아버지)’) 가져온 술병을 기울이며 나는 새 떼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도요새 무리를 북에 두고 온 그리운 ____이라 생각함.) 내가 말하고 내가 새가 되어 대답하는 그런 대화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새가 고향땅 부모님이 되고, 형제가 되고, 어떤 때는 약혼자가 되어 내게 들려주던 그 많은 이야기를 나는 기쁨에 들떠, 때때로 설움에 젖어 화답하는 그 시간만이 내게는 살아 있는 진정한 시간이었다.(현실의 삶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과거의 삶을 그리워함.) 세월의 부침 속에 고향에 대한 내 향수도 차츰 식어 갔다.(____를 전후로 한 세월의 흐름, 생태계 파괴로 ____가 사라지면서 ‘나’의 ____도 식어 감.) 이제 새 떼가 부쩍 줄어든 동진강 하구(산업화로 인한 ____으로 생태계가 ____됨.)도 내 인생과 함께 황혼을 맞고 있었다. 동진강이 악취 풍기는 폐수로 변해 버렸기 때문(새 떼가 줄어든 이유, ‘폐수’는 공장 따위에서 쓰고 난 뒤에 버리는 물을 의미하므로, ____를 드러내 주는 소재로 볼 수 있음.)이었다. 지금 보는 바다 역시 헤엄쳐 북상하면 며칠 내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던 거리가 까마득히 멀어 보였다.(고향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더해짐.) 철새나 나그네새는 휴전선을 넘어 자유로이 왕래하건만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만 해가 갈수록 내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겼다.(____적 대상, 관념(안타까움, 시간의 흐름)을 ____적으로 형상화함.)

▶ 도요새를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아버지)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나는 여느 날처럼 신문을 폈다. 특별한 읽을거리나 속 시원한 기사가 눈에 띌 리 없었다. 오전에는 별 할 일이 없으므로 일 면부터 팔 면까지 살살이 읽고 저녁 텔레비전 프로를 훑어보았다. 좋아하는 권투 중계는 없었다. 벽시계를 보았다. 이제 겨우 열 시였다. 지금 기원으로 나간 다 해도 강 회장이 벌써부터 출근해 있을 리 없었다. [강 회장은 강원도 동진시 통천군 군민회 회장으로, 나와 십오 년 넘기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동향의 실향민으로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사이임.)였다.

강 회장 고향은 부전령 아래 송화였고 나보다 칠 년 연상이었다. 흥남 철수 때 처와 자녀 둘을 고향에 두고 홀로 피란 내려와 구제품 따위를 파는 행상을 시작해선 육십 년대 초 이곳에 정착하여 상동 시장에서 포목점을 내었다. 동진읍이 시로 승격되자 강 회장이 사둔 잡종지(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지가(땅값)가 뛰었고 점포가 부쩍 커졌다. 그러나 일 년 전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일어난 뒤로 포목업도 남한에서 새 장가를 들어 얻은 여편네에게 넘기고 바둑으로 소일하고 지냈다. 1([]: 강 회장이라는 인물이 살아온 ____을 소개함. ____적 제시)

▶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와 '강 회장'에 대한 소개

내가 신문 바둑난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대문 초인종이 길게 울렸다. 마루 끝에 앉아 껌을 씹으며 라디오 유행가를 듣던 종옥이가 대문계로 달려갔다. 초인종 소리로 보아 두 아들 녀석 같지 않았고 여편네가 또 뭘 빠뜨리고 나갔다 황망히(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는 면이 있게) 돌아왔으려니 싶었다.

“누구세요?”

종옥이 철문 쇠빗장을 달그랑거리며 물었다.

“김병국(‘나’의 장남)이라고, 이 집에 살지요?”

바깥의 무뚝뚝한 목소리였다.

종옥이 문을 열자, 장교와 사병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장교는 중위였고, 사병은 상등병이었다. 둘의 거동이 당당한 데다 사병은 총을 메고 위장망 씌운 철모를 쓰고 있었다. 내 가슴이 철렁했고 오른쪽 턱에 경련이 왔다.(장교와 사병의 모습에 기세가 눌림.) 전쟁 때 철원 전투에서 왼쪽 다리에 중상을 당한 뒤부터 놀랄 때나 흥분하면 부교감 신경의 실조증이 나타났다.(‘나’는 ____의 ____을 겪고 있음.) 병국이가 제 어미에게 돈을 못 타 내다 보니 내게 오천 원을 돌려 달라던 게 그저께였다. 내가 강 회장한테 돈을 빌려 애눔한테 주었는데 녀석이 그 돈으로 무슨 말썽을 피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엉거주춤 마루로 나섰다. 이런 종류의 일(병국을 찾는 방문객이 집에 찾아온 일)은 울여름 들고 벌써 두 차례였다.

▶ 하루하루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집에 병국을 찾는 방문객(장교와 사병)이 찾아옴

지난여름, 한창 더위가 짙 무렵이었다.(____을 찾는 방문객이 집에 찾아온 일을 ____함. 현재→과거) 비(B) 공단 성창 비료 서교 공장 노무과장이 어깨 벌어진 젊은이 셋을 거느리고 느닷없이 집으로 들어닥친 일이 있었다. 그날은 종옥이가 시장에 가고 없어 나 홀로 집을 지키던 참이었다.

1 “김병국이란 작자가 누구요? 도대체 어떤 위인인지(병국에 대한 비아냥거림) 상판(‘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나 좀 봅시다.”

젊은이 하나가 주먹을 내두르며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내 아들놈인데 당신네는 누, 누구요?”

기세에 놀려 내 목소리가 더욱 더듬거렸다.(평소에도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음. ____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음.)

“당신 자식이람 아직 마빡(‘이마’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 새파란 놈이겠군. 그 새끼 좀 봅시다.”

다른 젊은이가 욕박질렀다.

“아들은 지, 지금 집에 없소.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요?”

“그 자식 간 데를 붙어요. 당장 작살을 내고 말 테니.(협박한 기세)”

또 다른 젊은이가 방문 열린 큰방과 건넌방을 기웃거리며 말했다. 마흔쯤 되어 보이는 노무과장이란 자가 내게 정중하게 인사했다.(젊은이들과 달리 ____과 ____를 갖춤.)

“이거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병국이란 자제분을 만날 수 없겠습니까?”

노무과장이 젊은이들을 제지시키곤 말했다.

“마루에라도 조, 좀 앉으십시오.”

“앗구 자시구 할 시간이 없단 말이오!”

한 젊은이가 말했다.

“가만있자, 병국일 차, 찾자면……. 아무래도 힘들겠네요. 자정이 돼야 돌아오니 나, 난들 행선지를 알 수 있어야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자제분이 우리 회사를 상대로 관계 오로(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자리나 지위. 또는 그 자리나 지위에 있는 사람)에 진정서(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여 적은 글을 의미함. 사건의 ____이 되면서 동시에 ____의 ____이 되는 소재임. 이 소설의 ____와도 관련을 맺음.)를 보냈습니다.” [([]: 노무과장이 병국을 찾아온 이유)

노무과장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 시 보건과에 접수한 진정서 사본 좀 보십시오.” [([]: 앞의 단락들과 비교하여 단락의 서술 방식이 달라졌음. 서술자의 직접 서술 방식(____가 ____을 직접 말해 주거나 ____하여 설명함.)에서 등장인물들 간의 ____ 방식(____을 그대로 보여 줌.)으로 서술 방식이 바뀌고 있음. 이는 인물의 ____이나 ____를 ____하게 묘사할 수 있고, 사건을 보다 극적이고 ____있게 제시할 수 있게 해줌.)

노무과장은 마루에 걸터앉아 주머니에서 복사판 서류를 꺼냈다. 종이를 받아든 내 손이 떨렸다.(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 소심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음.) 방 안으로 들어가 돋보기안경을 찾아 낄 틈도 없이 희미한 글자를 대충 훑어보았다.(마음이 급해져서 나온 행동)

[성창 비료 서교 공장은 연간 사십 억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전혀 없음(병국이 ____를 내게 된 이유)이 입증되었다.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20분. 당 공장은 야음(밤의 어둠)을 틈타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여 그 가스가 폐교천(석교천)을 따라 안개처럼 덮쳐 와 동진강 하류로 확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새벽 4시 10분 동진강 하류에서 오징어잡이에 출어(물고기를 잡으러 배가 나감.)하려던 어민 18명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있었다. 당사는 기계 밸브가 고장 나서 가스가 샀다고 변명하지만 이런 사건은 일주일을 주기로 이미 수십 차례 반복되었음을 입증하며(관계 자료 별첨), 이로 미루어 당사는 일부러 밸브를 틀어 못쓰게 된 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성창 비료 서교 공장은 ____를 고려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____을 방류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으로써……. [([]: 병국이 낸 진정서의 내용: 성창 비료 서교 공장의 폐기물 방류로 인해 ____이 ____되고 있다는 내용)

“정신병자가 쓴 낙선 뭐 더 읽을 필요도 없소.”(진정서에 대한 공장 측의 반응: 환경오염에 대해 개의치 않으며, 진정 내용을 받아들이 의사가 없음.)

하며 한 젊은이는 내가 읽던 진정서를 낚아챘다.

“아, 아들놈이 낸 진정서 틀림없습니까?”

노무과장에게 내가 물었다.

“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자제분은 이 방면에 상습범(노무과장은 병국을 ____로 표현함.)이더군요. 지난 유월에는 풍천 화학(____과 마찬가지로 폐기물을 방류함.)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습니다. 풍천 화학 역시 야음을 틈타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동진강 하류 삼각주 지대 각종 새 삼백여 마리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했다나요.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노무과장의 가치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고 사업 이익만을 생각함. 인간 이외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____적인 가치관 ↔ ____적 가치관)”

노무과장 목소리가 열을 띠더니 ‘새나 물고기’란 말을 힘주어 강조했다.(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반언어적 표현)

“기가 막혀서. 뭐 제 놈이 실신했다거나 가족이 떼죽음당했다면 또 몰라.”

한 젊은이가 가소롭다는 듯 시큰둥 말했다.

“국민 소득 일천 달러 달성(적 배경이 드러남. 이 작품의 창작 시기는 1979년으로 이 시기의 주된 관심사는 _____의 추진으로 _____을 이루고 국민 소득을 높이는 것이었으며 _____ 문제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음.)에, 오늘날 조국 근대화(공장 측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_____하는 근거로 조국 근대화, 즉 _____과 _____향상을 내세움.)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줄 선생도 알지요?”

다른 젊은이가 내 눈을 찌를 듯 손가락질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관용적 표현(속담), 하찮은 새나 물고기 살리겠다고 조국 근대화(경제 성장)에 차질을 주겠다는) 미친놈 짓거리(_____보다 _____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을 알 수 있음.)를 이번으로 뿌릴 뽑아야 해!(관용적 표현, 근절해야 한다는 의미)”

또 다른 젊은이가 말했다. 그들은 병국이 소재를 두고 다시 한차례 이구동성 삿대질하며, 그놈이 돌아올 자정까지라도 기다리겠다고 세 젊은이가 마루로 올라왔다.

“선생, 진정도 진정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명예 훼손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_____ (賊反荷杖)의 태도) 간혹 기계 고장으로 가스가 새는 수가 있긴 합니다.(폐기물 방류가 고의가 아님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함.) 그러나 그걸 고의로 몰아붙이는 이런 진정에는 우리가 오히려 명예 훼손으로 자체분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나’를 은근히 _____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냄.) 선생도 지난번 반상회엘 나갔다면 우리 비(B) 공단에서 돌린 공문을 받아 보았을 겁니다. 공단 측에서도 공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폐수·풍속 측정 등 팔대 공해 검증 기구를 사들이려 예산을 책정했다는 내용(공장 측의 _____ 대책①) 말입니다. 또 오염 가능 지역을 삼 단계로 분류하여 오백여 가구 이주 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점(공장 측의 _____ 대책②)도 읽으셨겠죠?”

노무과장이 숨을 돌리더니 담배를 꺼내어 한 대를 자기가 물고 한 대를 내게 권했다. 그로부터 그들은 한 시간 남짓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동안 노무과장은 이론을 앞세운 설득으로, 세 젊은이는 힘을 과시한 위협으로 나를 몰아붙였다. 그동안 병국이는 용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병국의 행위를 _____하고 싶은 ‘나’의 심리를 엿볼 수 있음.) 그때도 그는 이틀째 집을 비우고 있었다. 동진강 하류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아니면 웅포리 아바이집 토방에서 잠을 잤음이 틀림없었다.

▶ 지난여름, 서교 공장 노무과장이 찾아왔던 일을 떠올림

“선생님이 김병국 부친 되십니까?”(과거→현재)

중위가 정중하게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만…….”

“보호자로서 저희 부대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병국이 지금 어, 어디 있습니까?”

“부대에서 보호 중입니다.”

“보호 중이라니, 녀석이 무, 무슨 사건을 저질렀나요?”

“아드님이 통금 시간에 우리 통제 구역 안으로 무단출입했어요. 선생님도 알겠지만 그 시간에 무단출입자는 부대 측에서 발포할 권한이 있습니다.(군인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를 밝힘.)”

“그럼 발포해서 병국이가 다, 다쳤나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간 잠시 시간을 내셔야겠어요.”

“부대가 어딘데요?”

“동남만 일대 경비를 담당하는 삼오칠오 부대입니다.”

▶ 병국의 _____ 때문에 부대 관계자가 ‘나’의 동행을 요구함

나는 방으로 들어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해석을 달리하면 까다로운 사건일 수 있으나 병국의 경우로 따져 볼 때 그리 큰 걱정은 안 해도 좋을 듯했다. 병국이가 해안선을 따라 남하해 온 간첩이 아니

요, 부대 경계 배치 상황을 탐지하려는 첩자가 아닌 이상 무사히 풀려나올 것임이 분명했다. 녀석은 새에 관한 무슨 조사를 목적으로, 아니면 수질 오염과 관련하여 경계 지구 안으로 잠입했음이 틀림없었다. ('나가 병국의 경우로 따져 볼 때 그리 큰 걱정은 안 해도 좋을 듯하다고 생각한 이유)

우리가 대문 밖으로 나오니 군용 지프가 대기하고 있었다. 사병이 운전수 옆자리에 타고 중위와 나는 뒷좌석에 앉았다. 차가 시내로 빠져나갈 동안 중위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무료한 시간을 쪼개느라고 내가 내 소개(6.25에 참전했던 상이군인임을 밝힘.)를 했다. [나는 스물여섯 해 전 전역된 대위 출신이다. 1952년 1월, 철원 전투(6.25 중 벌어진 전투)에서 중상을 입어 현재도 상이(부상을 당함.) 장교로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현역 시절 무공 훈장을 세 개나 받은 바 있다.]([]: '나'의 이력 소개. 군인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_____을 _____하는 역할을 함.) 내가 그런 말을 더듬더듬 엮자 중위는 동지적 친근감('군인'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_____, _____을 느낌.)을 보이며, 그럼 상사(자기보다 벼슬이나 지위가 위인 사람)님이시군요, 하곤 한결 공손히 응대했다.

“파견 대장님 소관이라 저는 그저 심부름을 왔습니다만.”

하고 중위가 서두를 땀 뒤 말했다.

“아드님이 성인이기 때문에 군이 보호자를 대동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 그 언행 진부(참됨과 거짓됨. 또는 진짜와 가짜)와 가족 관계를 파악하려 선배님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혹 제 아들놈이 철새 휴식 장소나 그 은신처를 찾으려 통제 구역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요?”('나가 생각하는 이유가 아닌, 다른 심각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_____을 지냄.)

“글쎄요…….”

“아니면 동진강 하류의 폐, 폐수 오염도를 조사할 목적으로?”

“둘 중 하나겠죠.”

중위는 알 만하다는 얼굴로 나를 보고 빙긋 웃었다.

[“그럼 경찰서로 이첩(받은 공문이나 통첩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 알림.)되는 건가요?”]([]: '나'의 걱정이 드러남.)

“가 보시면 만나겠지만 저희 파견 대장님은 무척 인간적입니다. (파견 대장이 _____대로만 해결하지 않고 개인의 _____을 고려하는 인물이라는 뜻. 파견 대장이 병국을 _____대로 처리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함.)”

나는 더 물을 말이 없었다. 중위 어투로 보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안심했다. (파견 대장이 인간적이라는 말에 '나'의 걱정이 다소 해소됨.) 어느덧 차는 시내를 빠져나와 석교천을 끼고 사방이 트인 해안 지대를 달렸다. 나는 지프 차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황량한 공한지(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심지 않고 놀리는 땅) 멀리로 비(B) 공단 공장 굴뚝들이 보였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밀려 연기가 시내 쪽으로 날아갔다. 그중 삼영정유공장으로 짐작되는 굴뚝에 가스를 태우는 불꽃이 중동 유전 지대처럼 붉은 혀를 날름거렸다. (공장 굴뚝에서 가스를 태우는 불꽃을 뱀이나 악귀의 혀처럼 묘사함으로써 _____에 대한 _____적인 인식을 드러냄.) 그 불꽃을 휩싼 검은 연기가 분진을 날리며 서쪽 하늘로 날아갔다. 삼각주 갈대밭과 해안 구릉 사이로 바다가 보이자, 지프는 휘어진 길을 따라 남쪽으로 꺾어 들었다. 나는 차창을 열었다. 소금 내 섞인 바닷바람을 마시자 뭉쳐 누웠던 희열이 내 몸을 천천히 달구었다. (_____와 관련된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름.) 나는 바다(_____의 _____)에 눈을 주었다. 가을 햇살 아래 바다의 잔물결이 반짝거렸다. 나는 바닷바람을 마시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어릴 적부터 병국이 그, 그놈은 바다를 무척이나 좋아했더랬지요.”

중위를 돌아보며 내가 말했다.

“저도 고향이 인천입니다만, 소년들에게 바다는 늘 큰 꿈을 키워 주지요.”

큰 꿈, 그렇다. (_____이 시작됨.) 병국이는 어릴 적부터 바다를 보며 큰 꿈을 키웠더랬다. 두 녀석(병국, 병식)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일요일이면 자전거 뒤에 병국이를 앉히고 자전거 앞에 병식이

를 태워 나는 곧잘 동진강 삼각주나, 동남만 남쪽 돌기에 자리 잡은 장진포까지 바다 구경을 나갔다. 병식은 장난질 심한 개구쟁이로만 기억에 남아 있지만, 병국이는 바다로 나오면 기선(증기 기관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을 보는 게 소원이었다. [동남만이 공업화의 거센 물결을 타자 한갓 고래잡이 기지였던 장진포가 향만 준설(물의 깊이를 깊게 하여 배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하천이나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 공사를 마쳐 이제 몇 만 톤급 배까지 들어오게 되었지만,]([]: _____로 인해 _____하는 시대 상황을 드러냄.) 그 당시는 고래잡이 배가 큰 배였다.

“아버지, 저는 외국 깃발을 단 큰 기선이 보고 싶어요.”

병국이는 말했다. 노를 젓거나 닻을 올려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룻배(돛이 없는 작은 배)나, 통통 배라 부르던 발동선은 녀석의 안중에 차지 않았다. 갈색 머리 코 큰 선원이 마도로스파이프를 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인사하는 기선이 어촌에 닻을 리 없었지만, 그는 난바다(육지로 둘러싸이지 아니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기선이 지나가는 구경이라도 했으면 바랐다.

“너는 큰 배가 그, 그렇게 타 보고 싶니?”

내가 물었다.

“그래요. 아버지는 기선을 타 보셨나요?”

병국이가 조갑지(조개, 혹은 조가비(조개껍데기)의 방언)를 주워 파도 위로 힘껏 내던졌다. 조갑지를 삼킨 큰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썰물이 파도의 뿌리를 밀쳤다. 큰 파도가 작은 파도로 기를 낮추어 발밑까지 따라왔다.

“나야 물론 여러 번 타 봤어. 부산서 일본 시, 시모노세키란 항구까지 배를 타고 건넜지.”

내 목소리가 시무룩했다. 해방 전 나는 오사카에서 전문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다.(과거 회상) 태평양 전쟁 말기 조선인 강제 학병 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나는 종전(전쟁이 끝남.)을 그곳에서 맛을 뻔했다. 1944년 여름,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해방은 금강산 유점사 말사(본사의 관리를 받는 절. 또는 본사에서 갈라져 나온 절)인 마하연에서 맞이했다. 이듬해 봄, 나는 대학에 다시 다니러 서울로 갔다.

“아버지, 기선을 타면 거룻배보다 훨씬 기분이 좋겠죠?”

“배가 크니까, 요동이 어, 없어 방 속에 있는 기분이지.”

“갑판이 학교 운동장만 하다면서요?”

[“병국아, 통일되면 우리 그런 배 타고 아버지 고향으로 가자구. 거기도 바닷가니 금강산 구경도 할 수 있거든. 내가 원산에서 중학교 다닐 때 금강산에 수학여행을 갔더랬지. 또 해방되던 해는 일 년 가까이 징용을 피하느라 금강산 기, 깊은 암자에서 숨어 살았어.”]([]: 실향민의 _____에 대한 _____과 고향에 대한 _____이 드러남.)

“금강산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면서요?”

[“무, 물론. 그림으로도 나는 금강산만큼 아름다운 산을 본 적 없어. 너도 들었지, 삐죽삐죽한 보, 봉우리가 일만이천 개나 된다는 것 말이야. 차, 참 볼만하지. 내금강만 하더라도 젤 높은 비로봉이며, 명경대·동석동·망군대·백만봉·조양봉·시, 십이폭포·진주담이며 외, 외금강은 또 어떨구. 만물상·비봉·폭포·연주담·집신봉·오, 오류동, 구룡천의 구룡연폭포…….”]([]: _____의 _____들을 _____하여 _____에 대한 간절한 _____을 드러냄.)

“그만하세요. 아버지 언제 그걸 다 외웠나요?”

“어디 그, 그뿐인가. 해금강, 신금강은 또 어떡하고. 장안사·표, 표훈사·유점사, 그것 말고도 절은 또 얼마라구.”

나는 신이 나서 입술에 침을 튀겨 가며 지껄었다.(고향에 대한 향수와 고향을 떠올리며 느끼는 _____이 드러남.)

남한에 정착한 뒤 그곳이 그리워 지도를 펴 놓고 주야장천 들여다보니 자연스럽게 외우게 된 지명이

었다. (한순간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음.) 내 눈앞에 금강산을 일주하듯 기암절벽의 산봉우리와 청청한 폭포와 단풍으로 타오르는 떨기나무 숲이 원색 영화 장면처럼 스쳤다. 나는 내 생전에 다시 그 산을 오를 수 없을 것 같았다. 만약 내가 한 번 더 그 산에 오를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서 눈을 감아도 좋으리라 하고 생각하자, 눈물이 돌고 코끝이 찡했다.

“아버지, 저 바다 따라 북으로 올라가면 금강산에 닿겠네요?”

“그럼, 아버지 고향 통천에도 다, 닿지. 두백리라고, 참 경치 좋은 어촌이란다. 해방 전에 네 할아버진 그곳에서 큰 어장을 가지고 계셨어. (‘나’가 고향에서 ____ 적으로 ____ 로운 삶을 살았을 것임을 짐작케 함.) 지금 사, 살아 계신담 연세가 쉰아홉, 내년이 환갑이로구나.”

갈매기 (‘__’의 처지와 ____ 되는 존재, 앞서 나온 ‘____’처럼 ‘나’와 달리 ____ 할 수 있는 존재임.) 두 마리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내 눈과 병국이 눈이 갈매기를 따라갔다. (‘____’는 ‘나’의 ____ 를 ____ 하는 존재임.)

“저 갈매기 타고 갈 수 있다면 내, 내일 아침쯤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한숨 끝에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 ‘나’는 병국과 금강산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회에 젖음

“아버지, 『닐스의 이상한 여행』 (____ 에 가고 싶은 ‘나’의 간절한 ____ 을 드러내는 역할을 함.)이란 동화책을 읽은 적 있어요?”

병국이 물었다.

“아니.”

“그 책을 보면 닐스가 꼬마 요정 톰테를 못살게 굴다 요술에 걸려 키가 십 센티도 안 되는 난쟁이로 변하지요. 그래서 큰 거위를 타고 기러기 떼를 따라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나요.”

“참 재, 재미있는 동화책이로구나. 나도 꼬마 요정 요술에나 걸렸으면 좋겠구나.”

“그럼 아버지만 거위를 타고 고향으로 가 버리면 어떡해요?”

“아니지. 너희들을 태워 고향으로 떠, 떠나야지.”

“야, 신난다. 정말 그런 요술이 동화가 아님 얼마나 좋을까.” (과거 회상이 끝남. ____ 이 ____ 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____ 적 인식을 보여 줌.)

▶ ‘나’는 병국과의 동화책 이야기를 통해 고향에 가고 싶은 간절함을 느낌

지프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섰다. 본부 막사 앞에 차가 몇자, 우리는 내렸다. 중위는 나를 본부 막사 파견 대장실로 안내했다. 대장 (중위가 ‘나’에게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말한 파견 대장)은 자기 책상에서 서류철을 뒤적이다 우리를 맞았다. 그의 계급은 소령이었다.

“김병국 부친 되십니다.”

중위가 나를 소개했다. 그리고 덧붙여, 내가 예편된 대위 출신으로 육이오 전쟁에 참전한 상이용사라고 말했다. (중위가 대장에게 ‘나’에 대해 소개함.)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윤영구라 합니다. 앉으시지요.”

윤 소령이 나를 회의용 책상으로 안내해 간이 철제 의자를 권했다. 그는 호인다운 인상에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여, 중위의, 파견 대장은 인간적이란 말에 한결 신뢰감을 주었다. (인물의 ____ 을 보고 그의 ____ 을 짐작함.)

“불비(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지 아니함.)한 자식을 뒤서 죄, 죄송합니다. 자식놈과 얘기해 보셨다면 아, 알겠지만 천성이 착한 놈입니다.” (의도적으로 통제 구역에 무단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나’의 의도를 내포함.)

의자에 앉으며 내가 말했다.

“어젯밤 마침 제가 부대에서 숙식할 일이 있어 장시간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눠봤지요. 똑똑한 젊은이더군요,” (윤 소령이 병국이 하는 일에 ____ 할 줄 아는 식견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음. 앞서 노무과장

은 병국을 ‘_____’이라고 표현했으나, 파견 대장은 병국을 ‘_____’라고 표현함.)

“요즘 제 댄에는 뭐 조류와 환경오염 실태를 여, 연구한답시고……. 모르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시, 심려를 끼치지 않았나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제분은 군 통제 구역 출입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텐데도 무모한 행동을 했어요. 설령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사전에 부대 양해나 협조부터 요청해야지요.”(병국이 하는 일에 공감 하긴 하지만 병국에게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함. _____을 고수하는 윤 소령의 성격이 드러남.)

“물론 그래야지요.(윤 소령의 말을 _____한 후 자식을 두둔하며 이해와 선처를 구함.) [야영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워, 월경(국경이나 경계선을 넘는 일)했겠쬬.]([]: 병국의 행위가 _____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였다고 변명하면서 자식을 _____함.) 어떻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아비 된 제가 주의 를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윤 소령(안보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인물. _____와 _____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님.)은 병국의 신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법적 처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_____를 암시함.), 1968년 11월 울산·삼척 지구 무장 공비 출현으로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예로 들었다.(무장 공비 출현 사건을 예로 들어 _____과 _____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병국의 행동이 _____한 행위였음을 상기시키고 있음.)

“……그들은 야음(밤의 어둠)을 틈타 쾌속정을 이용하여 동해안을 따라 남하했던 겁니다.”

윤 소령은 말했다. 그는 국제 유수(손꼽을 만큼 두드러지거나 훌륭함.)의 공업 단지 보안과 경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한 무장 공비가 자주 출현했던 1960년대의 상황과, _____상황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_____은 국가 보안과 경비의 중요성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아시겠지만 우리는 실전이 없달 뿐 휴전이란 이름으로 전쟁을 쉬고 있는 준전시 상태 아닙니까. 남북 공존의 평화를 원한다면 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경각심을 풀 수 없어요. 기실 국민 복리와 제반 사업의 성장이란 것도 안보 확립(윤 소령이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 앞서 노무과장은 경제 성장과 같은 _____를 중요시 여겼음.)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 소령은 당번병을 불러 김병국 군을 데려오라고 말했다. 한참 뒤, 사병과 함께 병국이 파견 대장실로 들어왔다. 땀국 앓은 께죄죄한 그의 물골이 중병 환자 같았다. 점퍼와 검정 바지도 펄투성이여서 하수도 공사를 하다 나온 듯했다. 병국은 움푹 꺼진 동태 눈으로 나를 보았다.(초췌한 _____ - 병국의 현재 처지와 내면을 보여 줌.)

“이 녀석아, 넌 도대체 어, 어떻게 돼먹은 놈이냐! 통금 시간에 허가증 없이 해안 일대에 모, 못 다니는 줄 뻔히 알면서.”(_____ 제도가 있었던 1970년대의 사회상을 알 수 있음.)

내가 노기를 띠고 아들에게 소리쳤다.(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나’는 병국의 초췌한 모습에 안타까움과 _____의 정을 느끼고 있으나 _____을 의식하여 일부러 화를 냄.)

“본의는 아니었어요. 사흘 사이 동진강 하구 삼각주에서 갑자기 새들이 집단으로 죽기에 그 이유를 좀 알아보려던 게…….”(병국이 통제 구역에 들어와 군부대에 붙잡히게 된 이유, ‘나’의 예상에 들어맞음.)

병국이 머리를 떨구었다.

“그래도 변명은!”

“고정하십시오. 자제분 의도나 진심은 충분히 파악했으니깐요.”(윤 소령이 병국의 _____를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음.)

윤 소령이 말했다.

병국은 간밤에 쓴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고, 각서 한 장을 썼다. 내가 그 각서에 연대 보증(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을 섬으로써 우리 부자가 파견대 정문을 나서기는 정오가 가까울 무렵이었다.(긴 시간 동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침.) 부대에서 나올 때 집으로 찾아왔던 중위가 병국이 사물을 인계했다. 닭털 침낭과 등산 배낭, 이

인용 천막, 그리고 걸레 조각처럼 늘어진 바다오리와 꼬마물떼새 시신이 각 열 구씩이었다. (병국이 야영을 하며 _____ 을 조사했음을 알 수 있음.)

▶ 군부대에서 풀려난 병국을 데리고 부대를 나섬

“죽은 새는 뭘 하게?” (‘나’의 질문 의도: _____ 과 관련된 병국의 행동에 관심을 보임. ‘나’는 동진강 하구의 환경오염에 대한 _____ 을 가지고 있는 인물임.)

웅포리 쪽으로 걸으며 내가 물었다.

“해부를 해서 사인을 캐 보려고요.”

“폐, 폐수 탓일까?”

“글쎄요…….”

“너도 시장(배가 고피.)할 테니 아바이집으로 가서 저, 점심 요기나 하자.”

나는 웅포리 정 마담을 만나 이삿돈을 받아오려던 아내 말을 떠올렸다. 병국이는 식사 따위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병국의 관심은 오로지 _____ 을 밝히는 것임.)

[“아버지, 아무래도 새를 독살하는 치(‘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 병국이 추측하는 _____)

“그걸 어떻게 아니?”

“갑자기 떼죽음당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전에도 새나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물 탓이야. 이제 동진강은 강물이 아니고 도, 독물이야. 조만간 이곳에서 새 떼가 자취를 감추고 말게야.” (_____ 과 달리 ‘나’는 ‘독물’이 되어버린 _____ 가 _____ 이라고 생각함.)

▶ ‘나’는 병국과 새들의 집단 폐사 원인에 대해 대화를 나눔

[뒷부분 줄거리] 병국은 철새의 죽음과 병식이 하는 일(재수생인 병식은 용돈을 벌기 위해 친구와 함께 _____ 를 _____ 하는 일을 함.)이 관련 있음을 알게 되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병식(병식과 병국의 가치관이 다름. 병식에게 ‘새’는 _____ 의 대상, _____ 의 대상이지만, 병국에게 ‘새’는 정신적 _____ 의 상징, _____ 생명임. ‘나’에게 ‘새’는 _____ 에 대한 _____ 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임.)과 다툰 뒤 바다로 가는 버스에 오른다. 병국은 버스에서 내려 술집을 지나가다가 통일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만 자신의 존재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지나쳐 버린다. 그리고 비상하는 도요새를 바라보고 따라가다 놓치고 만다. (자신이 꿈꾸어 오던 이상이 좌절된 병국에게 도요새는 환경오염으로 사라져 가는 안타까운 대상이자 자신과 _____ 하는 대상임.)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학습 활동 지문 확인]

(가)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은이 십만 냥이 남았다.

“이건 변 씨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은 _____ 한 사람들을 _____ 하기 위해 _____ 에게 _____ 을 빌렸음.)

허생이 가서 변 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세월이 흘렀기 때문)

하고 묻자, 변 씨는 놀라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 냥을 실패 보지 않았소?” (변 씨의 한계: 상대방의 _____ 을 통해 _____ 과 _____ 를 판단함.)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상인) 일ियो.]([]: 허생의 한계: ____을 ____함.) 만 냥이 어찌 도(道)를 살찌게 하겠소?”(허생의 가치관을 알 수 있음. ____적 가치인 ‘돈, 재물’보다는 ____적 가치인 ‘도’를 더 중시함.)

하고, 십만 냥을 변 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아침의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 읽기를 중도에 폐하고 말았으니,(허생은 궁핍한 상황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음.) 당신에게 만 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 씨는 대경해서 일어나 절하고 사양하고(허생의 ____을 깨닫고 자세를 바꿈.), 십 분의 일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어,(허생이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한 것은 ____의 ____에 그 목적이 있지 장사치처럼 ____을 취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 → 허생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자신이 작은 ____에 연연하지 않는 ____임을 드러내는 것임.)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허생의 ____의 한계)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 버렸다.

- 박지원, 「허생전」에서

(나)

“당신은 밤낮없이 글을 읽는데,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니 어찌 된 것입니까?”(집안의 가장이 ____에만 몰두하고 ____를 돌보지 않고 있음.)

남편(허생, (가)와 달리 ‘____’를 중심인물로 설정하고 있음. ____ 중심의 ____적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삶을 ‘허생의 처’를 통해 보여 줌으로써 ‘____’에 대해 강하게 ____하고 있음.)은 여전히 책에 시선을 둔 채 가볍게 대꾸했다.

“공부가 미숙한 때문이오.”(독서의 목적: 학문 수양)

“그럼 장사라도 하여 먹고살아야지요.”(허생의 아내는 ____를 걱정하고 있으나, 허생은 ____에 대해 별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음.)

“장사는 밀천이 없는데 어찌하겠소.”

“그럼 공장(수공업에 종사하던 장인,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일이라도 하시지요.”

“공장이는 기술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당신은 주야로 독서하더니(독서와 관련된 한자서어: 독서삼매(讀書三昧), 위편삼절(韋編三絕), 차형손설(車螢孫雪)) 배운 것이 고작 어찌하겠소 타령입니까? 사람은 생명이 있는 다음에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법인데(____를 돌보는 것이 중요함. 이상적인 학문, 명분보다 ____적 가치를 중시함.) 이제 우리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도리를 차리셔야 합니다.”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칠 년밖에 되지 않았거늘 나더러 뭘 하라는 거요?”

“대체 무엇을 위해 독서하십니까?”(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____는 ____적 ____을 감추기 위한 핑계로 인식됨.)

남편은 대답이 궁해지자 책을 탁 덮고 일어나 탄소리를 했다.

“애석하구나, 겨우 칠 년이라니.”

그러고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남편은 뛰어난 인재라고 했다. 능히 천하를 경영할 재주가 있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죽는지 사는지 아내가 모르고, 아내가 죽는지 사는지 남편이 몰라야만 뛰어난 인재가 되는 거라면 그 뛰어난 인재라는 말은 분명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리라.(남편의 태도에 대한 불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비판함.)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란 성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며,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살도록 해 주는 것, 그것 말고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허생의 처는 _____ 보다 _____ 한 가정의 _____ 을 추구하고 중시함.)

- 이남희, 「허생의 처」에서

고1국어 지학사

6(1) 도요새에 관한 명상 내신 암기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갈래	중편 소설, 환경 소설
성격	사실적 , 생태학적 , 현실 비판적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인물별) →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 1970년대 후반(회상: 6.25 전 후) - 공간: 동진강 하구(도요새의 도래지)
주제	산업화 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비판 과 민족 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인식
특징	•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함. • 각 부마다 서술 시점을 달리하여 등장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바다'와 '도요새'와 같은 매개물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제시함. • 각기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을 통해 산업화 시대 다양한 가치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유도함.

2. 구성

발단 (1부)	가족들(실직한 아버지, 제적당한 형, 일확천금을 꿈꾸는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나'(병식)는 재수를 하면서 친구인 '족제비'와 함께 밀렵 한 도요새 를 팔아 유흥비로 쓰며 생활함.
전개 (2부)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당한 '나'(병국)는 낙향하여 자책감을 갖고 살다가 동진강 하구 의 환경오염 문제와 새 폐 에 관심을 갖게 됨.

위기·절정 (3부)	실향민 인 '나'(아버지)는 도요새 를 보며 분단 으로 인해 갈 수 없는 고향 을 그리워 함. 한편 환경오염 문제를 파헤치려고 군 통제 구역 에 들어갔다 붙잡힌 병국 을 데리고 돌아옴.
결말 (4부)	병식과 병국은 병식의 도요새 밀렵 행위 때문에 다투게 됨. 병국은 홀로 바닷가에서 도요새의 비상을 보고 따라가다가 놓쳐 버리고 맴.

3. 등장인물

'나'	• 실향민이면서 무능력하고 소극적인 소시민 • 도요새를 보며 고향을 그리워함. • 동진강 하구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짐.
병국	• 시국에 연루되어 제적당한 뒤 낙향함. •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며, 환경오염과 새 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 • 도요새를 지켜야 할 생명으로 여김.
노무과장	•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보다 경제 성장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생각함. •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는 새나 물고기가 죽은 하찮은 일로 여기며 인간중심적 가치관을 지님.
윤소령	• 국가 안보와 경비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님. • 원칙을 고수하는 인물이지만 병국이 하는 일에 공감할 줄 아는 식견을 지닌 인간적인 인물임.

4. 시대적 배경

통금, 간첩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긴장되고 경직되었으며 통제가 심함.
산업화	경제 성장 우선주의를 내세운 급격한 산업화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등이 발생함.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확대됨.

5. '도요새'와 '바다'의 의미

도요새	• 병식: 용돈을 벌기 위한 밀렵의 대상, 경제적 이익의 추구 대상 • 병국: 환경 및 자연 파괴의 희생물, 지켜야 할 생명, 정신적 자유의 상징 • '나': 고향의 가족들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존재, 남북 분단으로 인한 사람들의 슬픔
바다	• '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경로 • '병국': 꿈과 이상

6. 학습 활동 「허생전」과 「허생의 처」의 등장 인물

허생	•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님. • 상인을 무시하며 계급의식의 한계를 드러냄.
변 씨	• 상대방의 외양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판단함. • 허생의 비범함을 깨닫고 태도를 바꿈.
허생의 처	•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대부에게 대해 비판함. • 이상적인 학문, 명분보다 실용적 가치인 생계를 돌보는 것을 중시함. • 대의명분보다 소박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중시함. •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을 비판함.

고1국어 지학사

6(1) 도요새에 관한 명상 내신 암기 TEST 1단계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갈래	중편 소설, 환□ 소설
성격	사□적, 생□학적, 현실 □□적
시점	□인칭 주□□ 시점(인물별) → 전□적 작□ 시점
배경	• 시간: 19□□년대 후반(회상: 6.□□ 전후) • 공간: □□강 하구(도□□의 도래지)
주제	산□□로 인한 환□□염 문제에 대한 비□과 민□의 비□적 현실에 대한 인식
특징	• 과□와 현□가 교차되는 역□□적 구성 방식을 취함. • 각 부마다 서□ 시점을 달리하여 등장인물의 내□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바□’와 ‘도□□’와 같은 매개물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과 심□를 제시함. • 각기 다른 가□□을 지닌 인물들을 통해 산□□ 시대 다양한 가□에 대한 독자의 판□을 유도함.

2. 구성

발단 (1부)	가족들(실직한 아버지, 제적당한 형, 일확천금을 꿈꾸는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나’(병식)는 재수를 하면서 친구인 ‘족제비’와 함께 밀□한 도□□를 팔아 유흥비로 쓰며 생활함.
전개 (2부)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당한 ‘나’(병국)는 낙향하여 자책감을 갖고 살다가 □□강 하구의 환□□염 문제와 □ 때에 관심을 갖게 됨.

위기·절정 (3부)	실□민인 ‘나’(아버지)는 도□□를 보며 분□으로 인해 갈 수 없는 고□을 그□□함. 한편 환□□염 문제를 파헤치려고 군 □□ 구역에 들어갔다 붙잡힌 병□을 데리고 돌아옴.
결말 (4부)	병식과 병국은 병식의 도□□ 밀□ 행위 때문에 다투게 됨. 병국은 홀로 바닷가에서 도요새의 비상을 보고 따라가다가 놓쳐 버리고 맴.

3. 등장인물

‘나’	• 실□민이면서 무능력하고 □극적인 소시민 • 도□□를 보며 고□을 그□□함. • 동진강 하구의 환□□염에 대한 □□의식을 가짐.
병국	• 시국에 연루되어 제적당한 뒤 낙향함. • 현실보다는 이□을 추구하며, 환□□염과 □ 때에 관심을 갖고 □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 • 도□□를 지켜야 할 생□으로 여김.
노무과장	• 환□□염 문제의 해결보다 경□ 성□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생각함. •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는 □나 물□□가 죽은 하창은 일로 여기며 □□중심적 가치관을 지님.
윤소령	• 국가 안□와 경□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님. • 원□을 고수하는 인물이지만 병국이 하는 일에 공□할 줄 아는 식견을 지닌 인□적인 인물임.

4. 시대적 배경

통□, 간□	남□이 휴□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긴장되고 경직되었으며 통□가 심함.
산□□	경□ 성□ 우선주의를 내세운 급격한 산□□로 환□ 문제, 노동 문제 등이 발생함. □□주의적 가치관이 확대됨.

5. '도요새'와 '바다'의 의미

도요새	• 병식: 용□을 벌기 위한 밀□의 대상, 경□적 이□의 추□ 대상 • 병국: 환□ 및 자□ 파□의 희□□, 지□야 할 생□, 정□적 자□의 상징 • '나': 고□의 가□들을 떠올리게 하는 □□체, 남□을 자□롭게 오□는 존재, 남□ 분□으로 인한 사람들의 슬□
바다	• '나': 고□으로 갈 수 있는 경□ • '병국': □과 이□

6. 학습 활동 「허생전」과 「허생의 처」의 등장 인물

허생	• 물□적 가치보다는 정□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님. • 상□을 무시하며 □□의식의 한계를 드러냄.
변 씨	• 상대방의 외□을 통해 성□과 실□을 판단함. • 허생의 비□함을 깨닫고 태도를 바꿈.
허생의 처	• 경□적으로 무□한 사대부에 대해 비□함. • 이□적인 학문, 명분보다 실□적 가치인 생□를 돌보는 것을 중시함. • 대의□□보다 소□한 가정의 행□을 추구하고 중시함. • □성 중심의 가□□적이고 봉□적인 가치관을 비□함.

고1국어 지학사

6(1) 도요새에 관한 명상 내신 암기 TEST 2단계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갈래	중편 소설, □□ 소설
성격	□□적, □□□적, □□ □□적
시점	□인칭 □□□ 시점(인물별) → □□적 □□ 시점
배경	• 시간: □□□□년대 후반(회상: □.□ □ 전후) • 공간: □□□ 하구(□□□의 도래지)
주제	□□□로 인한 □□□□ 문제에 대한 □ □과 □□의 □□적 현실에 대한 인식
특징	• □□와 □□가 교차되는 □□□적 구성 방식을 취함. • 각 부마다 □□ 시점을 달리하여 등장인물의 □□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와 '□□□'와 같은 매개물을 활용하여 인물의 □□과 □□를 제시함. • 각기 다른 □□□을 지닌 인물들을 통해 □□□ 시대 다양한 □□에 대한 독자의 □□을 유도함.

2. 구성

발단 (1부)	가족들(실직한 아버지, 제적당한 형, 일확천금을 꿈꾸는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나'(병국)는 재수를 하면서 친구인 '족제비'와 함께 □□한 □□□를 팔아 유흥비로 쓰며 생활함.
전개 (2부)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당한 '나'(병국)는 낙향하여 자책감을 갖고 살다가 □□□ □□의 □□□□ 문제와 □ □에 관심을 갖게 됨.

위기·절정 (3부)	□□□인 '나'(아버지)는 □□□를 보며 □□□으로 인해 갈 수 없는 □□을 □□□함. 한편 □□□□ 문제를 파헤치려고 □ □□ 구역에 들어갔다 붙잡힌 □□을 데리고 돌아옴.
결말 (4부)	병식과 병국은 병식의 □□□ □□ 행위 때문에 다투게 됨. 병국은 홀로 바닷가에서 도요새의 비상을 보고 따라가다가 놓쳐 버리고 맴.

3. 등장인물

'나'	• □□□이면서 무능력하고 □□적인 소시민 • □□□를 보며 □□을 □□□함. • 동진강 하구의 □□□□에 대한 □□ □□을 가짐.
병국	• 시국에 연루되어 제적당한 뒤 낙향함. • 현실보다는 □□을 추구하며, □□□ □□ □ □에 관심을 갖고 □□적으로 행동하는 인물 • □□□를 지켜야 할 □□□으로 여김.
노무과장	• □□□□ 문제의 해결보다 □□ □□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생각함. •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는 □나 □□□가 죽은 하찮은 일로 여기며 □□ □□적 가치관을 지님.
윤소령	• 국가 □□와 □□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님. • □□을 고수하는 인물이지만 병국이 하는 일에 □□할 줄 아는 식견을 지닌 □□적인 인물임.

4. 시대적 배경

□□, □□	□□이 □□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긴장되고 경직되었으며 □□가 심함.
□□□	□□ □□ 우선주의를 내세운 급격한 □□□로 □□ 문제, 노동 문제 등이 발생함. □□□□적 가치관이 확대됨.

5. '도요새'와 '바다'의 의미

도요새	• 병식: □□을 벌기 위한 □□의 대상, □□적 □□의 □□ 대상 • 병국: □□ 및 □□ □□의 □□□, □□□ 할 □□, □□적 □□의 상징 • '나': □□의 □□들을 떠올리게 하는 □□□, □□을 □□□게 □□는 존재, □□ □□으로 인한 사람들의 □□
바다	• '나': □□으로 갈 수 있는 □□ • '병국': □□과 □□

6. 학습 활동 「허생전」과 「허생의 처」의 등장 인물

허생	• □□적 가치보다는 □□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님. • □□을 무시하며 □□□□의 한계를 드러냄.
변 씨	• 상대방의 □□을 통해 □□과 □□를 판단함. • 허생의 □□□□을 깨닫고 태도를 바꿈.
허생의 처	• □□적으로 □□한 사대부에 대해 □□함. • □□적인 학문, 명분보다 □□적 가치인 □□를 돌보는 것을 중시함. • □□□□보다 □□한 가정의 □□을 추구하고 중시함. • □□ 중심의 □□□□적이고 □□적인 가치관을 □□함.

고1국어 지학사

6(1) 도요새에 관한 명상 내신 암기 TEST 3단계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갈래	중편 소설, _____ 소설
성격	_____적, _____적, _____적
시점	_____ 시점(인물별) → _____ 시점
배경	• 시간: _____년대 후반(회상: _____전 후) • 공간: _____하구(_____의 도래지)
주제	_____로 인한 _____문제에 대한 _____과 _____의 _____적 현실에 대한 인식
특징	• _____와 _____가 교차되는 _____적 구성 방식을 취함. • 각 부마다 _____시점을 달리하여 등장인물의 _____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_____'와 '_____'와 같은 매개물을 활용하여 인물의 _____과 _____를 제시함. • 각기 다른 _____을 지닌 인물들을 통해 _____시대 다양한 _____에 대한 독자의 _____을 유도함.

2. 구성

발단 (1부)	가족들(실직한 아버지, 제적당한 형, 일확천금을 꿈꾸는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나'(병식)는 재수를 하면서 친구인 '족제비'와 함께 _____한 _____를 팔아 유흥비로 쓰며 생활함.
전개 (2부)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당한 '나'(병국)는 낙향하여 자책감을 갖고 살다가 _____의 _____문제와 _____에 관심을 갖게 됨.

위기·절정 (3부)	_____인 '나'(아버지)는 _____를 보며 _____으로 인해 갈 수 없는 _____을 _____함. 한편 _____문제를 파헤치려고 _____에 들어갔다 붙잡힌 _____을 데리고 돌아옴.
결말 (4부)	병식과 병국은 병식의 _____때문에 다투게 됨. 병국은 홀로 바닷가에서 도요새의 비상을 보고 따라가다가 놓쳐 버리고 맴.

3. 등장인물

'나'	• _____이면서 무능력하고 _____적인 소시민 • _____를 보며 _____을 _____함. • 동진강 하구의 _____에 대한 _____을 가짐.
병국	• 시국에 연루되어 제적당한 뒤 낙향함. • 현실보다는 _____을 추구하며, _____과 _____에 관심을 갖고 _____적으로 행동하는 인물 • _____를 지켜야 할 _____으로 여김.
노무과장	• _____문제의 해결보다 _____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생각함. •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는 _____나 _____가 죽은 하찮은 일로 여기며 _____적 가치관을 지님.
윤소령	• 국가 _____와 _____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님. • _____을 고수하는 인물이지만 병국이 하는 일에 _____할 줄 아는 식견을 지닌 _____적인 인물임.

4. 시대적 배경

____, ____	____이 ____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긴장되고 경직되었으며 ____가 심함.
____	____ 우선주의를 내세운 급격한 ____로 ____ 문제, 노동 문제 등이 발생함. ____적 가치관이 확대됨.

6. 학습 활동 「허생전」과 「허생의 처」의 등장 인물

허생	• ____적 가치보다는 ____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님. • ____을 무시하며 ____의 한계를 드러냄.
변 씨	• 상대방의 ____을 통해 ____과 ____를 판단함. • 허생의 ____을 깨닫고 태도를 바꿈.
허생의 처	• ____적으로 ____한 사대부에 대해 ____함. • ____적인 학문, 명분보다 ____적 가치인 ____를 돌보는 것을 중시함. • ____보다 ____한 가정의 ____을 추구하고 중시함. • ____ 중심의 ____적이고 ____적인 가치관을 ____함.

5. '도요새'와 '바다'의 의미

도요새	• 병식: ____을 벌기 위한 ____의 대상, ____의 ____ 대상 • 병국: ____의 ____, ____ 할 ____, ____의 상징 • '나': ____들을 떠올리게 하는 ____, ____을 ____게 ____는 존재, ____으로 인한 사람들의 ____
바다	• '나': ____으로 갈 수 있는 ____ • '병국': ____과 ____